

차별과 배제 관련 국민의식 분석

한국 사회 포용성 평가

- 한국 사회 포용성 평점, 10점 만점에 4.72점에 그쳐
- 한국 사회, 혐오 관련 용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2030 남녀 계층에서 매우 높아
- 지역별로는 서울, 직업별로는 학생 계층에서 용어 이해도 높아
- '노 키즈 존', 동의한다 71%

차별 또는 배제 관련 세부 국민의식

- 국민들, 우리 사회가 다방면에 걸쳐 '차별적'이라고 생각
- 성/연령별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차 존재

대상별 포용 정도 평가

- 전반적으로 포용성 낮은 가운데 '한부모 가정, 자녀' 가장 높아
-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매우 커
- 성/연령별로 볼 때 남자 2030세대와 여자 60대 포용도 낮아

• • •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한국 사회 포용성 평가

※ 한국 사회 포용성 평점, 10점 만점에 4.72점에 그쳐

- ▶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기보다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우리 사회가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국민 전체적으로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 가깝다고 응답함
 - 0점은 ‘폐쇄적.차별적’, 10점은 ‘개방적.포용적’, 5점은 ‘보통이다’는 척도로 조사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는 의미임
 - 이러한 척도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평점은 4.72점으로 우리 사회가 보통에 다소 미치지 못한 ‘폐쇄적.차별적’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폐쇄적이고 차별적’ 사회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 특정 계층만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로 판단됨
- ▶ ‘폐쇄적이고 차별적’ 사회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평점이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보수층 △PK 계층임
 - 보수층 평점은 4.36점으로 가장 낮음
- ▶ ‘개방적이고 포용적 사회’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계층(평점이 5점 이상인 계층)은 △50대 △진보층 △호남 △자영업자 계층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는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5.13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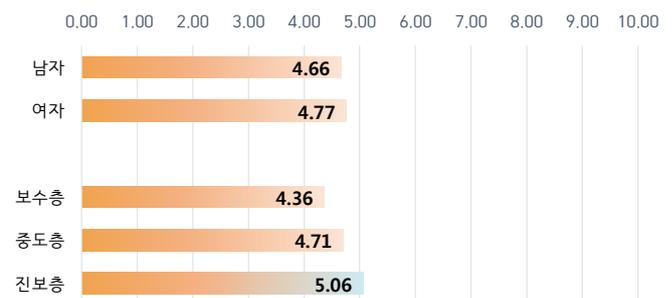
한국사회 개방성 평가: 국민전체

(0과 10 사이에서의 평균값 / 0은 폐쇄적, 차별적, 10은 개방적, 포용적)
(자료:케이스탯 2020.06.07조사,단위:점)



한국사회 개방성 평가: 성별,이념성향별

(0과 10 사이에서의 평균값 / 0은 폐쇄적, 차별적, 10은 개방적, 포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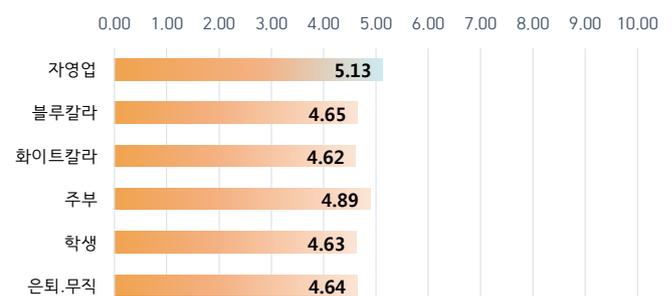
한국사회 개방성 평가: 지역별

(0과 10 사이에서의 평균값 / 0은 폐쇄적, 차별적, 10은 개방적, 포용적)



한국사회 개방성 평가: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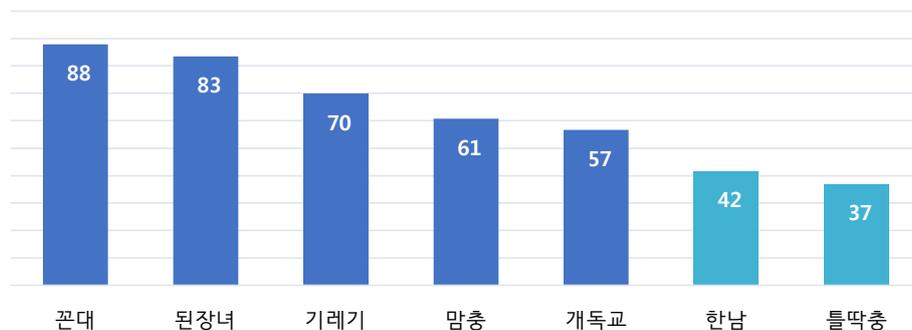
(0과 10 사이에서의 평균값 / 0은 폐쇄적, 차별적, 10은 개방적, 포용적)



※ 한국 사회, 혐오 관련 용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 ▶ 우리 국민은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용어가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힘
-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 계층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어떤 때 사용하는 용어인지, 그 뜻을 정확히 아시는 용어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 후 일곱가지 용어를 제시한 결과 대다수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조사됨
- ▶ 가장 이해도가 높은 용어는 ‘꼰대’(88%)이고, 다음으로 ‘된장녀’(83%), ‘기레기’(70%), ‘맘충’(61%), ‘개독교’(57%) 순으로 나타남
- ‘한남’은 42%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틀딱충’은 37%로 가장 낮은 이해도를 보임
- ▶ 참고로, 각 용어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꼰대 :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 또는 인물을 비하하는 용어
 - 된장녀 : 허영심을 가진 여자를 칭하는 용어로 시작한 이후 현재는 여성 자체를 비하하는 용어로 확장됨
 - 기레기 :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허위사실과 부풀린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등에 대한 비하 용어
 - 맘충 : ‘맘’(엄마)과 ‘충’(벌레)의 합성어로 아이 양육을 빌미로 민폐를 끼치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용어
 - 개독교 : 개신교를 비하하는 용어로 극단성, 선민의식, 편협함 등을 빗대는 용어
 - 한남 : ‘한국남자’와 ‘충’(벌레)의 합성어로 한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용어
 - 틀딱충 : 틀니+딱딱+충(벌레)의 합성어로 노인들이 틀니를 착용한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노인혐오 용어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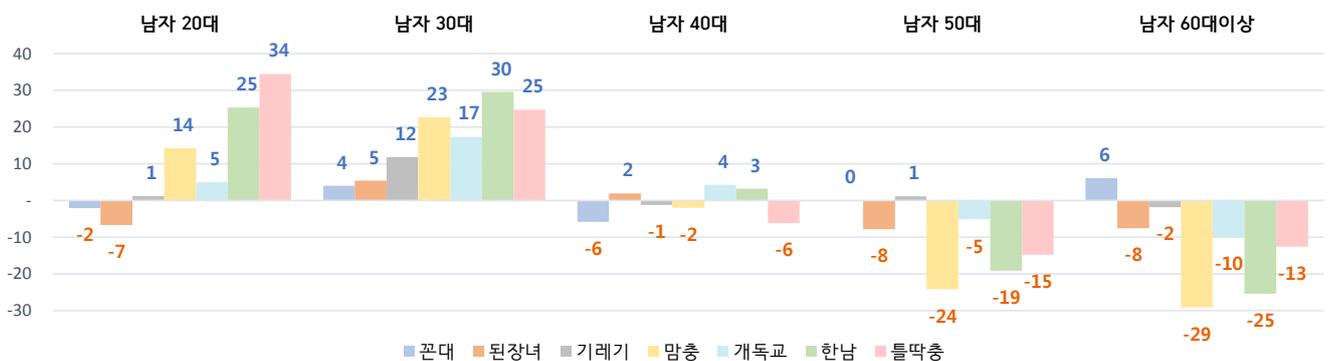
Kstat Point

- ☑ 혐오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함
- ☑ 최근 미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서 보듯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뿌리깊게 유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상당한 수준임
 - : 백인 경찰의 흑인 범주자에 대한 과잉 진압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등 서구 사회는 특정 인종 및 계층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커다란 사회문제임
- ☑ 한국 사회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악플)이 해당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하는 등 ‘혐오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 이번 조사에서도 혐오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혐오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우려감이 재차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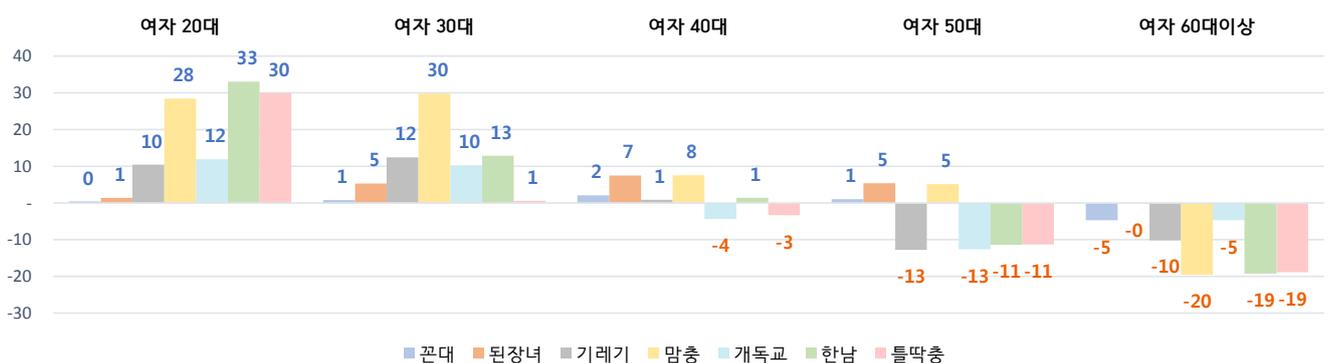
※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2030 남녀 계층에서 매우 높아

- ▶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 남녀 계층에서 매우 높고, 다른 성/연령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30 남녀 계층에서 혐오 관련 표현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주변 지인의 사용에 의한 접촉 등이 많은 것으로 그만큼 혐오 관련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됨
- ▶ 성/연령별 이해도에서 국민 전체 이해도를 뺀 편차를 분석한 결과 남자 30대에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여자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순으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비해 4050세대의 이해도는 국민 전체와 비슷하거나 낮아 혐오 관련 표현을 자주 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국민전체 대비 편차 : 남자/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국민전체 대비 편차 : 여자/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 그래프의 기준선에서 상단에 위치할수록 국민전체 대비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가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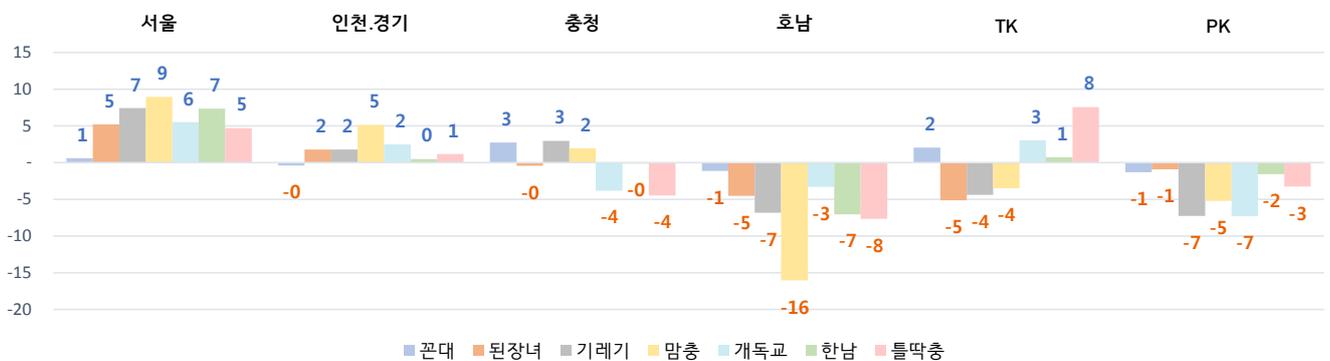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관련 용어 사용 등 혐오적 표현에 대해 '신조어'이자 언어적 유희에 따른 재미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있음
- ☑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상당수 국가들은 국적·인종·성적지향·나이·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할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벌하고 있음(참고로 미국은 없음)
- ☑ 언어란 사람의 인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혐오 표현을 많이 할수록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혐오를 당연시 여기게 되며, 특히 그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은 심각한 충격을 받는다는 점을 우리 사회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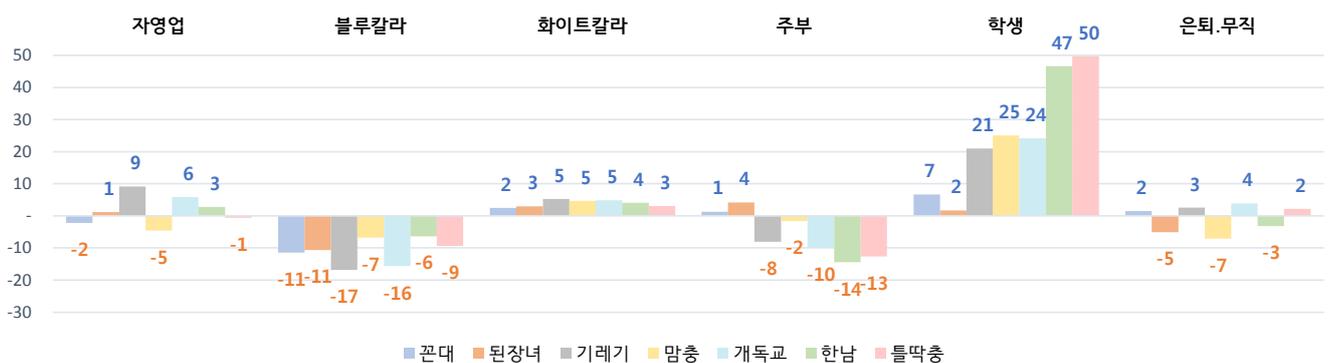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 직업별로는 학생 계층에서 혐오 용어 이해도 높아

- ▶ 혐오 용어 이해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경기가 높게 나타나 주로 수도권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혐오 용어 이해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호남이고, 다음으로 PK로 나타남
- ▶ 직업별로는 학생 계층에서의 이해도가 매우 높아 혐오와 배제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에서도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직업 중 혐오 용어 이해도가 가장 낮은 직업군은 블루칼라 종사자이고, 주부와 은퇴.무직자 계층의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국민전체 대비 편차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 국민전체 대비 편차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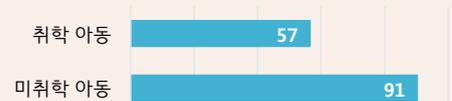
※ 그래프의 기준선에서 상단에 위치할수록 국민전체 대비 혐오 관련 용어 이해도가 높은 편임

Kstat Point

- ☑ '맘충'이라는 혐오 표현의 대상인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맘충'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91%로 압도적으로 높음
- ☑ 거의 모든 부모가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맘충'이라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봤거나, 들었거나, 듣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든 경우의 총합으로 보임
- ☑ 그 무엇이든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맘충' 대상군에 포함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사회 현상임

'맘충' 용어 이해도 : 자녀나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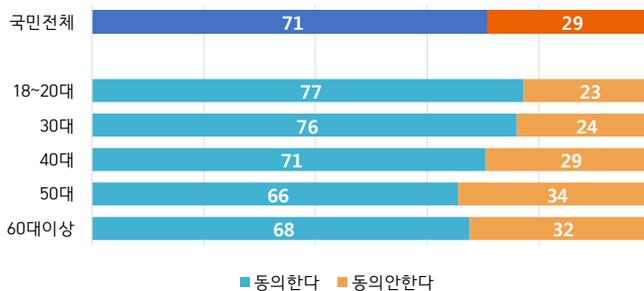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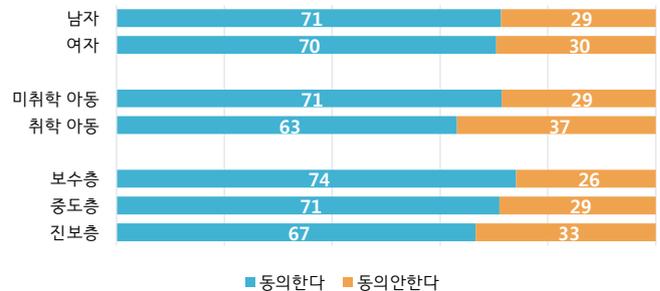
※ '노 키즈 존', 동의한다 71%

-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선언하고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늘고 있는데, 국민 다수는 이러한 '노 키즈 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의한다'는 응답은 71%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에 그침
- ▶ 모든 계층에 걸쳐 '동의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2030 세대 △보수층 △서울, TK △학생 계층임
-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낮은 계층은 △50대 △진보층 △호남 △블루칼라, 주부 계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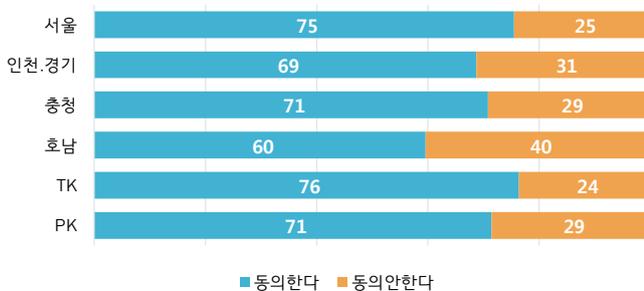
'노 키즈 존' 동의 여부 : 국민전체,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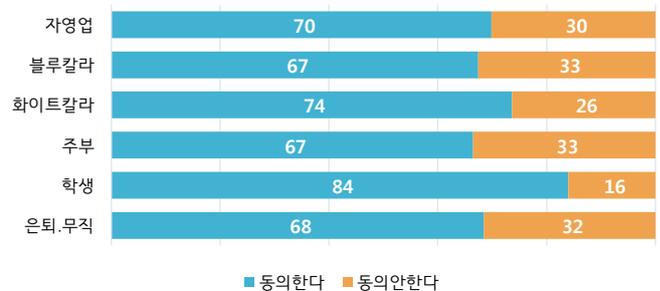
'노 키즈 존' 동의 여부 : 성별,자녀나이별,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노 키즈 존'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노 키즈 존'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 '노 키즈 존'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부모의 그릇된 태도 때문으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를 주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곤 했기 때문임
 - : '어린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 '어린이가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하면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 등이 찬성의 구체적 이유임
- ☑ 이에 대해 '노 키즈 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어린이가 소란을 피우거나 모든 부모들이 공공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노 키즈 존'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부모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함
 - : '노 키즈 존'은 유색인종 출입금지, 유대인 출입금지와 다를 바 없는 차별이자 인권 유린' 이라고 말함
- ☑ 이러한 찬반 입장의 대립 와중에 '노 00 존'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임
 - : 최근에는 '노 시니어 존'(49세 이상 입장 거절), '노 중학생 존'(스터디 카페), '노 래퍼 존'(홍대 카페), '노 커플 존'(일부 카페), '노 퍼퓸 존'(음식점) 등 '노 00 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
- ☑ 당장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손쉬운 해결책이지만 갈등을 사회 전체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런 흐름을 용인할 경우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로 치달게 된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함

㉨ 차별 또는 배제 관련 세부 국민의식

※ 국민들, 우리 사회가 다방면에 걸쳐 '차별적'이라고 생각

- ▶ 앞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라기보다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를 살펴본 바 있음
 - 국민들은 한국 사회 포용성에 대해 10점 만점에 4.72점을 매김
- ▶ 구체적으로 직업, 학벌, 나이, 돈, 성, 고향, 노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노인에 대한 차별 질문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의견이 31%로 낮게 나타남
- ▶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차별은 '직업'(84%)이고, 다음으로 '학벌'(79%), '나이'(69%), '돈'(68%), '성'(64%), '고향'(58%) 순으로 나타남

사회적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



Kstat Point

- ☑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매우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요약 가능함
- ☑ 이는 한 때 유행하던 '헬 조선', '금수저·흙수저' 등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시 재차 촉발된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케이스탯 지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없다'(60% 동의)는 여론과도 일맥 상통함
- ☑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차별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도 차별적인 행동에 동의하면서('노 키즈 존' 찬성 71%) 차별의식을 내재화하는 양상임
- ☑ 국가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의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임 : 이러한 출발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 성/연령별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차 존재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60대 이상이 사회적 차별에 대한 동의도 편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여자 20대의 동의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동의도 편차가 가장 낮은 성/연령대는 남자 20대로 사회적 차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 ※ 동의도 편차는 '동의한다'는 여론 비중에서 '동의안한다'는 여론 비중을 뺀 수치임
- ▶ 남자 60대 이상과 여자 20대는 동의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강조점은 다소 다름. '직업', '학벌', '성'에 대해서는 편차가 비슷한 가운데 남자 60대 이상은 '돈'과 '고향'에 대한 동의도 편차가 크고 여자 20대는 '나이'에 대한 편차가 큼
- 남자 60대 이상의 경우 삶의 경험에 기반해 사회적 차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 20대는 주어진 사회적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남자 60대 이상은 '고향'에 대한 동의도 편차가 이례적으로 높고, '노인'에 대한 동의도 편차 역시 유일하게 플러스 수치를 보이고 있음
- ▶ 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남녀간에 비교적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여성은 2050 세대에서 동의도 편차가 40%p 이상인데 비해 남성은 2050 세대에서 동의도 편차가 20%p 미만에 그침
- 특히 남자 30대의 경우 동의도 편차가 -6%p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음
- ▶ '고향', 즉 지역감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의도 편차가 크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남자 3040 세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
- ▶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돈'에 대한 인식으로, 2030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동의도 편차가 낮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대해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자 연령별 사회적 차별 관련 주장 동의도 편차('동의한다' - '동의안한다')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사회적 차별의 유형	직업	학벌	나이	돈	성	고향	노인
남자 18~20대	48	40	47	13	17	12	-49
남자 30대	61	40	40	16	-6	-8	-55
남자 40대	62	52	46	52	14	-4	-55
남자 50대	75	61	24	50	16	13	-21
남자 60대이상	86	78	29	65	43	42	6

여자 연령별 사회적 차별 관련 주장 동의도 편차('동의한다' - '동의안한다')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사회적 차별의 유형	직업	학벌	나이	돈	성	고향	노인
여자 18~20대	73	66	64	27	48	17	-47
여자 30대	66	65	48	30	47	22	-52
여자 40대	63	59	41	43	46	17	-45
여자 50대	73	68	41	36	48	19	-35
여자 60대이상	72	59	33	41	24	3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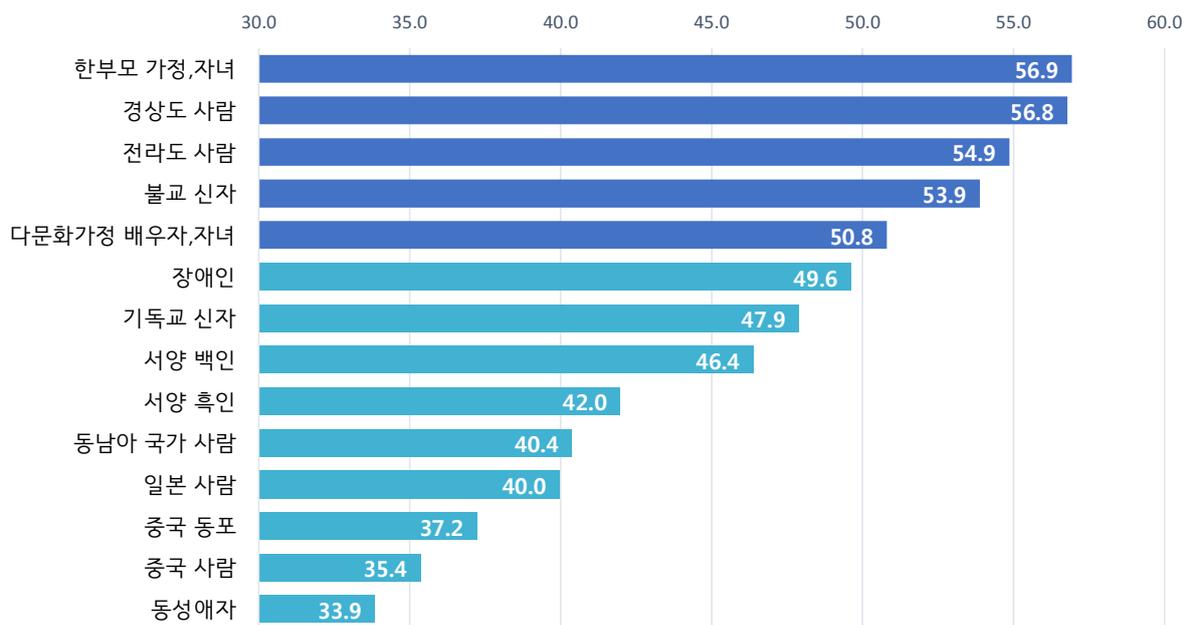
※ 사회적 차별 동의 편차가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임

▣ 대상별 포용 정도 평가

※ 전반적으로 포용성 낮은 가운데 '한부모 가정, 자녀' 가장 높아

- ▶ 한국 사회에서 배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포용성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어느 대상도 평균 60%를 넘지 못함
- ▶ “선생님께서 아래 각각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의향이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 아래 6개 항목을 제시함
 - 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괜찮다, ② 옆집에 살아도 괜찮다, ③ 내가 속한 친목모임에 가입해도 괜찮다, ④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해도 괜찮다, ⑤ 상대방이 친구가 되기 원하면 친구돼도 괜찮다, ⑥ 우리 가족과(또는 내가) 결혼해서 가족돼도 괜찮다
- ▶ 총 14개 대상 중에서 6개 항목 평균이 가장 높은 대상은 '한부모 가정, 자녀'(56.9%)이고, 다음으로 '경상도 사람'(56.8%), '전라도 사람'(54.9%), '불교 신자'(53.9%), '다문화가정 배우자, 자녀'(50.8%) 순으로 나타남
 - 이른 바 '지역감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지만 절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지역감정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종교인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독교 신자는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선민의식과 편협함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서양 백인', '서양 흑인'을 망라해 외국인에 대한 포용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중국 사람'에 대한 포용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14개 대상 중에서 가장 포용 정도가 낮은 대상은 '동성애자'로 33.9%에 그치고 있음

대상별 포용 정도(6개항목 평균)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6.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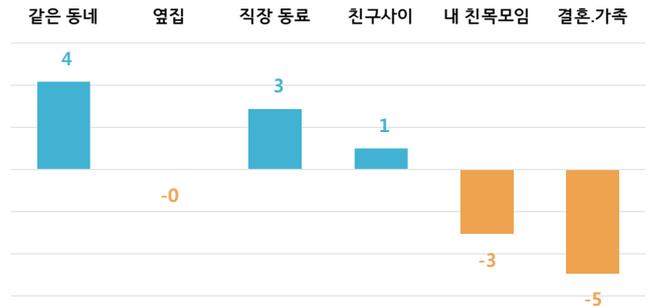
※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매우 커

- ▶ 대상별/6개 항목별 응답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동네'에 살거나 '직장 동료',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친목모임'에 가입하거나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 사회적 관계는 원만히 유지할 수 있지만 나만의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내 친목모임'과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옆집' 이웃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존재하지만 대상에 따라 다소 '괜찮다'고 응답하고 있음
- ▶ 전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데, 전체 평균 대비 항목별 편차를 살펴보면 '내 친목 모임' 가입이나 '결혼을 통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가족' 항목은 전체 평균(56.9%) 대비 -11%p나 낮게 나타남
- ▶ 14개 대상별 전체 평균 대비 항목별 편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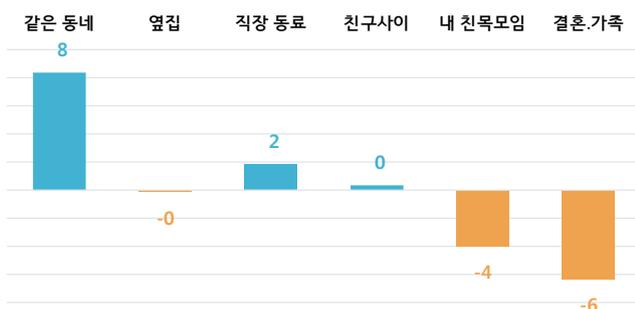
한부모 가정.자녀 포용도 전체 평균(56.9%)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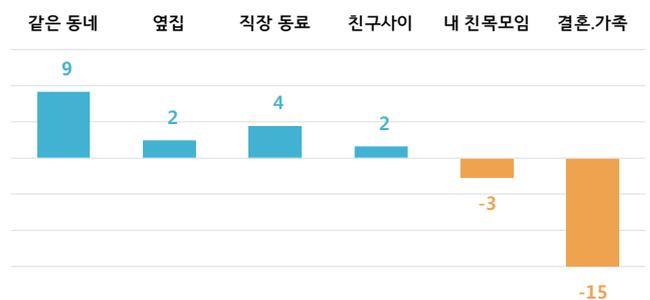
경상도 사람 포용도 전체 평균(56.8%)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전라도 사람 포용도 전체 평균(54.9%)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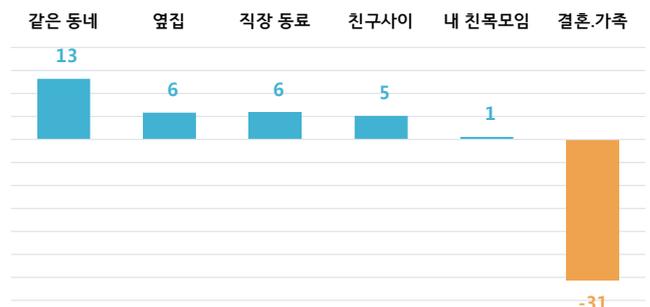
불교 신자 포용도 전체 평균(53.9%)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다문화가정 배우자.자녀 전체 포용도 평균(50.8%)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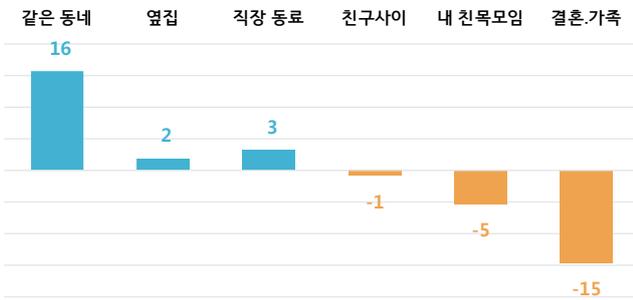


장애인 포용도 전체 평균(49.6%)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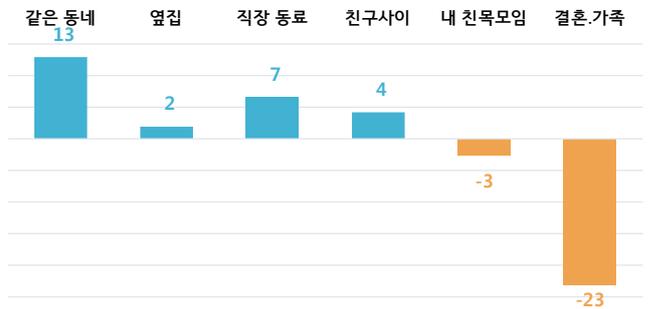
기독교 신자 포용도 전체 평균(47.9%)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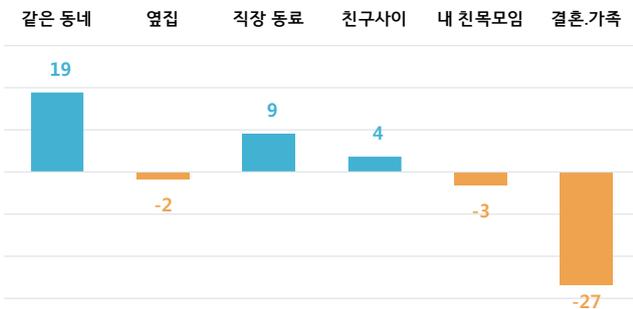
서양 백인 포용도 전체 평균(46.4%)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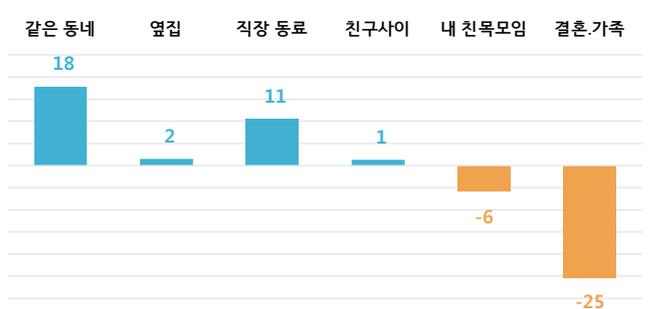
서양 흑인 포용도 전체 평균(42.0%)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동남아국가 사람 포용도 전체 평균(40.4%)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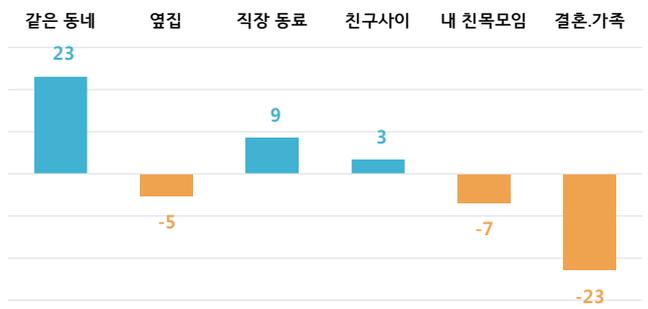
일본 사람 포용도 전체 평균(40.0%)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중국 동포 포용도 전체 평균(37.2%)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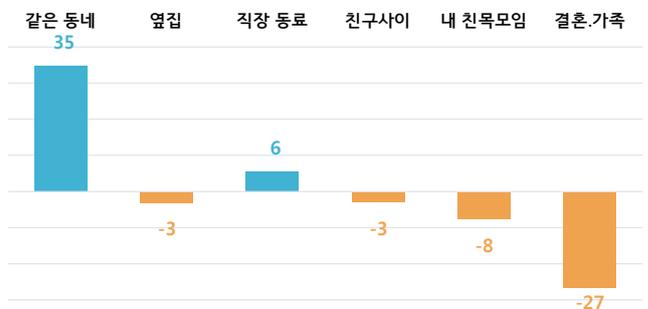
중국 사람 포용도 전체 평균(35.4%)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동성애자 포용도 전체 평균(33.9%) 대비 항목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 그래프의 기준선에서 상단에 위치할수록 대상별/항목별에 대한 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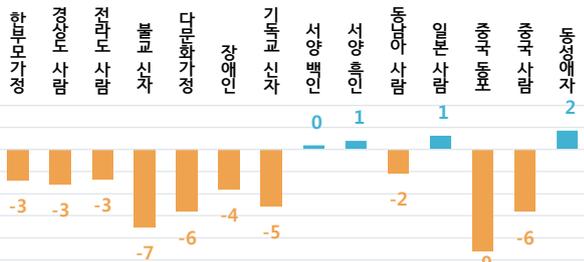
☑ 지난 2007년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단일 민족국가' 라는 이미지 아래 인종, 민족, 국가 그룹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부 대상에 대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연령별로 볼 때 남자 2030세대와 여자 60대 포용도 낮아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30세대는 국민전체에 비해 모든 대상에 걸쳐 포용도가 낮고, 반대로 남자 4050세대는 모든 대상에 걸쳐 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 30대의 경우 모든 대상에 대해 국민전체보다 매우 낮은 포용도를 기록, 가장 폐쇄성이 강함
- ▶ 여자의 경우 20대가 상대적으로 포용도가 낮지만 3050세대에서는 전반적으로 포용도가 높게 나타남
- 여자에 한정할 경우 여자 30대가 가장 포용도가 높은 계층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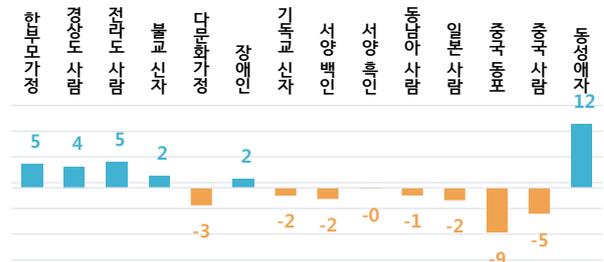
남자 18~2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여자 18~2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남자 3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여자 3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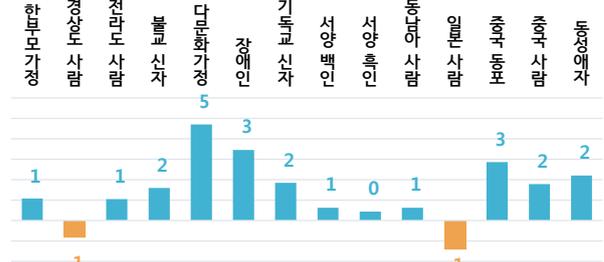
남자 4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여자 4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남자 5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여자 50대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 ▶ 60대 이상 남녀를 살펴보면 남자 60대 이상의 경우 비교적 국민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자 60대 이상의 경우 거의 모든 대상에 대해 낮은 포용도를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남자 30대에 이어 여자 60대 이상 계층의 포용도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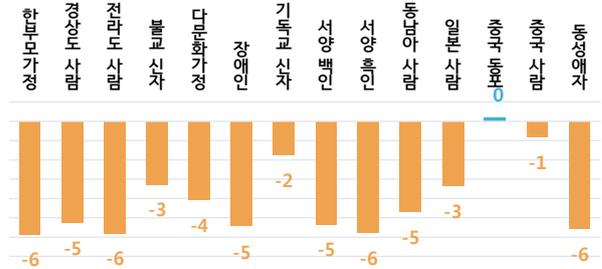
남자 60대이상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여자 60대이상 국민전체 대비 편차

(자료:케이스탯,2020.06.07조사,단위:%p)



※ 그래프의 기준선에서 상단에 위치할수록 대상별/항목별에 대한 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Kstat Point

- ☑ 20대 여자와 3040 남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세대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응답을 나타냄
- ☑ 또한 사회구조적 차별에 대한 주장 공감도에서도 다른 성/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 남자 30대의 경우 '성' 문제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함
- ☑ 하지만 '노 키즈 존'으로 대표되는 일상 속에서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는 이들 세대도 동의하고 있고, 14개 대상별 포용도에서도 남자 40대를 제외하면 포용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 또한 여자 2030 세대와 남자 30대 모두 혐오 관련 표현을 자주 접하는 등 차별과 배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진보란 '정치적 진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보다 궁극적인 진보의 가치는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
 - : 진보의 궁극적 지향은 이른 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임
 - : 그러나 한국에서의 진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을 가르고, 상대를 비판하는데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든 것이 현실임
- ☑ 우리 사회의 공정성 강화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 더불어 보수세력 역시 보수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진보의 자기반성과 혁신을 촉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조 사 개 요

조 사 기 간

2020년 6월 4일(목) ~ 6월 7일(일)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 사 기 관

케이스탯리서치

표 본 추 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 효 표 본

총 1,072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99\%p$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케이스탯은 조사·통계·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월 2회 “**Kstat Report**”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Kstat Report** 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 **Kstat Report** 는 매월 2,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Kstat Report 08호(2020.06.25.)는 “**국제 관계**”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